

# 藥峯 金克一의 文藝意識과 詩世界

吳 龍 源\*

• 目 次 •

- |                 |                  |
|-----------------|------------------|
| I. 머릿말          | 2. 歸隱的  삶의 渴望    |
| II. 文藝意識과 詩觀    | 3. 沈潛을 통한 內省的 返照 |
| III. 藥峯의 詩世界    | IV. 結 語          |
| 1.  삶의 基本的인  지향 |                  |

## I. 머릿말

약봉(藥峯 金克一:1522~1585年)은 16세기에 주로 활동했던 嶺南 士林派의 文人 가운데 한 인물이며, 退溪의 門人이다. 字는 伯純, 號는 藥峯, 本貫은 義城이다. 그의 父 淸계공(淸溪 金璣1500~1580年)은 26세에 司馬試에 급제하여 成均館에서 유학하면서 하서(河西 金麟厚:1510~1560年), 퇴계(퇴계 이황:1501~1570年) 등 당대 士林派의 名儒들과 교유하였다. 그는 사림파가 대참변을 당한 乙巳士禍(1545年)때 과거를 단념하고 靑杞縣(英陽郡 靑杞面)에 강당을 건립하여 후학양성에 일생을 바쳤다. 약봉은 아버지 淸계공과 어머니 閔氏 사이에서 5남 가운데 胄子로 태어났다. 아우로는 구봉(龜峯 金守一:1528~1583年), 早卒한 金明一, 학봉(鶴峯 金誠一:1538~1583年), 남악(南嶽 金復一:1541~1591年) 등이 있다. 이들 형제들은 德業과 文章이 당대에 출중하여 세 상사람들이 '金氏五龍'<sup>1)</sup>이라고 칭하였다.

\* 東國大學校 漢文學科 講師

1) 『藥峯先生文集』卷三, 「藥峯先生金公墓誌銘」, 283面 “…五賢子以德業文章 冠冕一世 世謂之金氏五龍 先生其長也…”

약봉의 年譜나 行狀과 같은 개인사의 자료가 현재 전하지 않아 인생 편력을 자세히 상고할 수 없다. 다만 밀암(密菴 李栽; 1657~1730年)이 撰한 「藥峯先生金公墓誌銘」, 귀주(龜洲 金世鎬; 1652~1722年)가 撰한 「通訓大夫內資寺正藥峯先生墓碣銘」 등을 기초로 하여 그의 生平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는 어려서부터 豪爽俊逸하였고, 청계공이 成均館에 있을 때 말을 내면 주위 사람들을 문득 놀라게 하여 서울 사대부들이 서로 다투어 神童이라는 평하였으니,<sup>2)</sup> 당시에 촉망받는 才士였다. 어려서는 家學으로 청계공에게 학문적인 수업을 받았고, 훗날 퇴계의 문하에 입문하여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 물론 현존하는 자료를 근거해 볼 때, 다른 문하에 출입한 흔적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가 퇴계의 문하에 입문한 시기는 퇴계가 서울의 京邸에 있을 때인 듯하다.<sup>3)</sup> 이후 그는 퇴계를 종유하며 많은 학문적 가르침을 받았고, 평생동안 잊지 못할 스승으로 삼았다. 특히 약봉의 이러한 의식적 단면은 그가 지은 「祭退溪先生文」에서 엿볼 수 있다.

극일은 이웃 마을에서 성장하여 도리에 어둡고 학문에 무지한터라, 비록 선생께서 가까이 데리고 가르쳐 주심이 부지런했으나, 실로 내가 마음으로 깊이 언음이 드물었다. 마땅히 제자로 인정하지 않고 버릴 것이었으나 도리어 돌보아 대해주셨으니, 넉넉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풍월(風月)을 읊고 즐기던 집에서 오늘 갑자기 하늘에 부르짖고 땅을 치는 슬픔의 잔을 드릴 줄 어찌 생각했겠습니까?<sup>4)</sup>

인용한 자료에는 그가 스승의 돌아가심에 임하여 자신의 불민함을 토로하고 아울러 부지런하지 못한 자신을 거두어 준 스승의 큰 은혜를 언급하고 있다. 예문을 통하여 우리는 학문적으로 약봉을 깨우쳐준 퇴계의 영향이 얼마나 큰었는지를 짐작해볼 수 있다.

2) 『藥峯先生文集』卷三, 「藥峯先生金公墓誌銘」, 283面 “…幼豪爽俊逸 從判書公遊太學 出語輒驚人 洛下大夫士爭相傳 熟稱神童…”

3) 權五鳳, 『李退溪의 實行儒學』, 1996. 34쪽

4) 『藥峯先生文集』卷三, 「祭退溪先生文」, 269面 “…克一 生長鄰鄉 味道懵學 雖勤提耳之誨 實少由心之得 宜在棄絕之科 反承顧遇之長 豈料去年吟風弄月之軒 遽奠今日…”

이후 25세(1546年)에 과거에 급제하여 校書館 正字에 제수되었다. 이 해에 어머니 閔氏의 喪을 당했다. 상을 마치고 承文院에 선발되었고, 正字·著作·博士를 거쳐서 천거로 起居郎이 되었다. 이후 刑曹 員外郎·司憲府 監察·洪原 縣監·淸洪都事·直講·刑曹와 禮曹 正郎·慶尙都事·禮曹 正郎·軍器 僉正·平海 郡守·司宰監 僉正·醴泉 郡守·成均館 司成·司導寺 正·星州 牧使·密陽 府使 등을 지냈고, 1580년 아버지 청계공이 돌아가시자 3년 상을 마치고 內資寺 正을 지냈다. 이후 4년 뒤 64세에 돌아가시니 臨河縣의 북쪽 飛鯉谷에 안장되었다. 그는 환로에서 내직보다는 주로 외직에서 많은 관직을 수행하였는데, 이는 부모의 봉양을 위한 배려였기에<sup>5)</sup> 孝悌忠信을 몸소 실천한 人間的 面貌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약봉의 문집이 병화로 散失되어<sup>6)</sup> 현재 남아있는 그에 대한 자료가 많지 않다. 아울러 그에 대한 기존의 연구도 安東 士林派의 研究와 教育史 研究에서 間歇的으로 언급되었을 뿐이고, 문학적인 측면에서 그에 대한 단독 연구는 지금까지 전무한 실정이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에서 논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본고는 약봉이 남긴 漢詩 作品을 위주로 하여 作品論의 측면에서 그의 人間的인 風貌와 文學觀, 그리고 詩世界에서 제재적 특징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오늘날 한국 한문학계의 추이에서 사람과 문학의 연구가 소홀한데 착안해 볼 때, 영남 사람과 문인 가운데 대표적인 한 인물이었던 약봉에 대한 문학적 고찰은 嶺南 士林派 文學의 形成과 背景, 그리고 展開過程을 연구하는 데 일조가 될 것이라 짐작해 본다. 아울러 본고에서는 『聯芳世稿』<sup>7)</sup>에 있는 『藥峯先生文集』을 주 텍스트로 삼아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5) 『藥峯先生文集』卷三, 「祭退溪先生文」, 279~280面 “又蚤遊大賢門下 學裕於己 道適於用 而恬於聲利 拙於進取 惟以家貧親老乞郡 致養爲榮 若世之所謂清班選仕者 則先生既擠而與之矣”

6) 『藥峯先生文集』卷三, 「藥峯先生金公墓誌銘」, 286面 “…不幸 散佚兵燹中 有若干卷藏于家…”

7) 天上叢書刊行會 編, 『聯芳世稿』, 新興印刷所 影印本, 1991.

## II. 文藝意識과 詩觀

약봉은 자신의 문학적 입장을 논리적으로 밝힌 산문이 거의 전하지 않기 때문에 본장에서는 주로 『藥峯先生文集』에 있는 그의 「墓碣銘」과 「墓誌銘」, 그리고 그가 한시 작품을 쓰면서 곳곳에 남기고 있는 「并序」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먼저 몇 가지 자료에 나타난 약봉에 대한 제가의 평과 현전하는 그의 한시 작품을 통해 人間的 風貌와 文藝意識, 그리고 詩文의 風格 등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약봉은 朝鮮朝 中期에 安東 士林의 대표적인 閥閥 家門의 문인이었다. 家門의 顯達과 學問의 師承關係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철저하게 性理學으로 무장한 전형적인 儒家의 학문에 근간을 이루고 있다.<sup>8)</sup> 이러한 측면에서 먼저 그의 本質的인 文藝意識을 살펴보기로 한다.

- |   |  |
|---|--|
| ○燭盡三丁夜向深<br>研朱披卷細鉤尋<br>淫辭俚似黃華曲<br>妙韻清如白雪音<br>技藝祇能生口氣<br>工夫都在察人心<br>自慙蹉跌墜坑久<br>欲出求梯爲子吟 | 세 자루 초 다 타니 밤이 깊어가는데<br>주묵 갈고 시권 펼쳐 세밀히 살펴보네<br>음사는 속되기가 마치 황화곡 같고<br>묘운은 맑기가 마치 백설음 같네<br>기예는 다만 구기만 낼 수 있을 뿐<br>공부는 모두 인심을 살피는 데 있네<br>헛디더 구덩이에 빠지니 절로 부끄럽고<br>나오려 사다리 구하여 그대들 위해 읊네 |
| ○諸公氣宇盡宏深<br>多謝朋來肯遠尋<br>嶧出高梧將待斲<br>靑田逸鶴欲揚音   | 그대들 기국이 모두 크고 깊으니<br>벗들 이르러 멀리 찾아옴을 깊이 사례하네<br>역산 높은 오동나무 베어서 쓰이길 기다리고<br>청전의 준수한 학 소리를 울리고자 하네  |

8) 약봉의 이러한 思惟體系는 다음 작품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藥峯先生文集』卷三, 「綠巖塔」, 146面

累石起五層 돌을 쌓아 오층탑 만들었는데, 突兀竟何爲 우뚝히 높이 솟아 무엇을 하려는고.  
千年落邪墟 천년동안 사악한 터였던 곳이, 一朝開正基 하루 아침에 바른 터전을 열었네.  
吾道當永興 우리 도는 당연히 길이 흥하고, 爾教當永衰 너의 교는 당연히 길이 쇠하리

人而不學爲禽獸	사람이고서 배우지 않으면 금수가 되는 법
道豈他求明性心	도를 어찌 달리 구하라 심성을 밝히면 그만
爲報工夫須實做	말하건데 공부란 실을 구하는데 있으니
莫將雕篆枉呻吟	문장 다듬는 작은 재주로 신음치 말지어다 <sup>9)</sup>

인용한 자료는 약봉이 동헌에 모인 여러 유생들에게 바른 학문의 길을 제시하는 교훈적인 시이며, 그의 문예의식을 짐작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된다. 자료 ㉠에서는 技藝와 工夫를 대로 들어 小技나 末藝에 빠지지 말고, 인심을 살피는 것에 전력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 여기에서 技藝는 바로 聖學이나 道에 비교하여 詞章이 가지는 小技와 末藝를 말하는 것이며, 工夫는 성인의 말을 구현하는 도에 전력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의 대체는 道本文末을 기저로 하여 詞章을 小技나 末藝로 인식하는 문예의식의 일단이다.

자료 ㉡는 역산의 오동나무가 훌륭한 재목으로 쓰이고, 청전의 고고한 학이 아름다운 소리를 울리는 것처럼 훌륭한 기국을 갖춘 유생들이 나라를 위해 좋은 재목이 되어 세상에 揚名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待斲과 揚名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心性을 밝히는 工夫에 정진하여 도를 구해야 한다. 그래서 문장을 다듬는 작은 재주에 呻吟하지 말 것을 거듭 역설하고 있다. 여기서 그가 언급한 대체는 배우는 사람들이 기이한 것만 좋아하고, 지역적인 문의 雕篆에 빠져 聖人의 경지에 나아가는 도를 구하지 못하는 당시 문인들의 폐단을 지적한 것이다.

道學과 詞章과의 문제가 고려에도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조선 초기에 성리학이 학문의 기본적인 사상으로 정립되면서부터 사대부문학에서 중요한 과제로 대두하였고, 이에 사림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조선이 개국하면서 유학을 국가의 기본이념으로 삼았고, 性理學이 유입된 이후 조선의 詩壇은 성리학을 바탕으로 한 창작이 문예의식에 근간을 이루었다. 물론 성리학적 문예의식이 문학작품의 질을 향상시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성리학이 가지는 思辨的인 학문적 성향으로 인해 표현할 수 있는 絃情의 制約과 硬直性도 인정해야

9) 『藥峯先生文集』卷三, 「二月初九日試居接儒生于東軒吟示諸生」, 230面

할 부분이다. 그러나 조선 초기의 유학에서 성리학의 이해 수준은 학문적으로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성리학이 문학론에 수용되면서도 도를 인간 내면세계의 수양 문제를 위주로 하였다기보다는, 정치와 외교의 문제로 연관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이러한 논의가 문학론에 계속 이어졌지만, 실제 글쓰기에서는 크게 반영되지는 못했다. 물론 약봉은 문학을 완전히 부정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인용한 예시에서 언급한 것은 말예나 소기에 너무 집착하게 된다면 문이 가질 수 있는 폐단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을 지적하는 하나의 경종이라 할 수 있다.

약봉의 이러한 언급은 그의 도문관을 짐작할 수 있는 근거로써 문이 도의 수양에 방해가 되므로 해서는 안된다고 하지만 결국 언어의 필요성은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道本文末의 견지에서 도와 문을 이해하였다.

아울러 그는 형제들 가운데 시례에 가장 뛰어났고, 퇴계의 문하에서 수학한 여러 문인들을 孔門의 四科로 나눌 때 文學에 뛰어났음을 그의 墓誌銘에 있는 銘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於休太宰詩禮傳  
五棣聯芳公首先  
維時陶翁方樂育  
公居四科以文學<sup>10)</sup>  
…「省略」…

아, 아름답도다 태재가 시례를 전함이어  
다섯 형제 나란히 아름다운데 공이 앞섰네  
당시 퇴계가 영재를 가르치길 즐겨워했으니  
선생은 사과 가운데서도 문학에 들었다네

앞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약봉의 형제들은 德業과 文章이 당대에 출중하여 세상사람들이 '金氏五龍'이라고 칭하였다. 인용한 자료에서는 특히 형제들 가운데서도 약봉이 앞섰다고 하니, 그의 학문적인 정도를 가늠해볼 수 있다. 孔門을 사과로 나누었던 것처럼, 退門에서는 그가 孔門四科의 文學에 뛰어났음을 언급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서 언급한 文學은 詩·書·禮·樂의 글을 배워 그것에 담겨진 뜻을 잘 말할 수 있는 것으로 넓게는 학문을 말하는 것이며, 좁게는 문학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오늘날 인문과학에서 말하는 문학과는 어느 정도 차이

10) 『藥峯先生文集』卷三, 「藥峯先生金公墓誌銘」, 288面

가 있을 것이다. 이와같이 그는 상당한 학문적 식견을 갖추었고, 문학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의 문학적 자질이 어느 정도이며 문학적인 경향이 어떠한지 살펴보기로 한다.

…선생의 문장은 준결창고(峻潔蒼古)하여 전혀 세속의 진부한 말이 없고, 특히 시에 능하였고 농담청완(穠淡淸婉)하여 각기 그 아취를 다하니, 일세에 시문으로 이름을 날린 이들이 모두 선생을 추대하여 문단의 영수(執牛耳)로 받들었다. 후세에 옛일을 논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선생의 시는 풍아(風雅)에 근본하여 방운(芳潤)이 조출하고 역대(歷代)를 참고하여 그 체재(體裁)를 갖추었으니, 조각(雕琢)을 일삼는 후세의 시인 목객이 비길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11)

인용한 자료는 약봉의 詩觀과 詩文風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예문에서 그의 문장은 ‘峻潔蒼古’하고 시는 ‘穠淡淸婉’하여 시문으로 당대의 문단에 으뜸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준결창고는 엄격하고 깨끗하며 높고 옛스럽다는 뜻으로 세속적인 것에서 초연하여 진부한 말이 없는 것이다. 농담청완은 풍만하고 깨끗하며 맑고 아름다운 것이다. 특히 그는 시의 창작에 있어서도 풍아에 근본하였기 때문에 단순히 아름답게 꾸미기보다는 역대 훌륭한 시의 전범적인 체재를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제가의 평에 드러난 그의 시풍은 저속한 가락과 속된 언어를 버리고 화려하게 수식하여 꾸미기보다는 조작성이 없는 자연스러운 美感을 갖추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1) 『藥峯先生文集』卷三, 「藥峯先生金公墓誌銘」, 286面 “…先生之文 峻潔蒼古 絕無世俗陳腐語 尤長於詩 穠淡淸婉 各極其趣一世 以詩文名家者 咸推先生 執牛耳 後之尙論者 以爲先生之詩 本風雅 以漱其芳潤 參歷代 以庀其體裁 非後世騷人墨客雕琢以爲工者比也”

### Ⅲ. 藥峯의 詩世界

『聯芳世稿』에 있는 『藥峯先生文集』은 卷2·卷3 등 모두 2卷으로 편집되어 있다. 卷2는 詩, 卷3은 詩·賦(1편)·書(1편)·祭文(1편)·碑碣(3편)·附錄(墓碣銘·墓誌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그의 문집에 전하고 있는 한시의 작품 수는 351題 494首이다. 병화로 많은 그의 창작물이 散失되었다고 추정해 본다면, 작품 수가 이보다 훨씬 많았을 것임을 짐작해볼 수 있다. 먼저 그의 작품을 유형에 따라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5言絶句	5言律詩	5言古詩	6言律詩	7言絶句	7言律詩	기타	합계
卷2	128	173	12	2				315
卷3			5		81	93		179
합계	128	173	17	2	81	93		494

도표에서 분류한 바와 같이 문집에 수록된 작품의 편재 방식은 한시의 형식에 따라 五言絶句, 五言律詩, 五言古詩, 六言律詩, 七言絶句, 七言律詩 등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고, 창작연대를 정확히 밝히지 않아 논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 공식적인 소급의 추론은 어려울 듯하다. 한시의 詩體에 있어서 雜體詩는 2수에 불과하고 전형적인 近體詩가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五言絶句와 五言律詩가 현저하게 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五言詩의 特長은 그의 한시 작법이 描寫나 修辭와 같은 꾸밈의 지나친 빈용보다는 함축적인 의미를 내포한 시어를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하는 데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작품 題材上의 분류에서는 물론 문집의 편찬상에 있어 散失에서 기인한 바도 있겠지만 輓詩나 贈別類와 같은 生活詩가 극히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본 장에서는 약봉의 한시 작품에 드러난 제재를 통하여 그의 의식적 기저와 제재적인 특징 등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 1. 삶의 기본적인 지향

조선은 개국하면서 유학을 국가의 기본적인 학문으로 정립하였다. 물론 유학이 가지고 있는 思辨의인 학문의 한계에 의해 많은 폐단도 낳았지만 제분야에서 발전을 거듭하였다. 특히 16세기 朝鮮朝 儒學의 여러 文化群 가운데서도 嶺南의 安東은 유교 문화의 중심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書院과 書堂, 그리고 亭舍의 많은 건립은 유학의 중흥에 지대한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출중한 인재를 배출하기에도 충분했다. 특히 아버지 청계공은 벼슬을 단념하고 후학 양성을 위해 1545년 靑杞縣에 靑杞書堂을 건립하였는데, 이는 退溪의 寒棲庵(1550年)과 陶山書堂(1560年)보다 몇 년 앞서 건립되었다는 점에서도 私學 教育에 큰 의미가 있다. 약봉은 이러한 학문적 배경의 여건에 큰 영향을 받은 한 문인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본 항에서는 이러한 배경에서 수학하고 성장한 약봉의 기본적인 삶의 지향과 학문적 면모를 실재 그의 한시 작품을 통하여 규명해 보기로 한다.

雙檜陰中闕講堂	두 그루 회나무 그늘 가운데 강당을 열었는데
諸公春服共翱翔	제공들 봄옷 입고 함께 한가로이 노는구려
論詩說賦詞源闊	시부를 논하고 이야기하니 사원이 드넓고
鏗瑟鳴琴道味長	금슬을 울리며 연주하니 도미가 넉넉하네
人向墻間誇醉飽	사람들 무덤 사이에서 취하고 배부름 자랑하나
士從綿上蔑侯王	선비는 면체에서 제후와 왕의 지위 하찮게 여기네
賢愚今日須分別	현명하고 어리석음이 이제야 그나마 분별되니
此酒樽前莫謾嘗 <sup>12)</sup>	이 술단지 앞에서 부질없이 맛보지 말지어다

예시는 그가 만년에 지은 작품인 듯하지만, 寒食에 여러 학인들과 서당에서 술을 마시며 자신의 심회를 잘 드러내고 있다. 『論語』의 「先進」편에서 子路·曾皙·冉有·公西華 등이 공자를 모시고 앉았다가, 증석이 의중을 말했다. “늦봄에 봄옷이 만들어지면 어른 대여섯 사람과 아이 예닐곱 명과 기수에서 목욕하고

12) 『藥峯先生文集』卷三, 「寒食日往餐堂與諸公飲話」, 230面

무우에서 바람씩고 읊조리며 돌아오겠다고 하니, 공자가 크게 차탄하며 말하기를, ‘나는 점에게 동의한다’<sup>13)</sup>고 하였다. 曾點과 孔夫子와의 대화에서 자연을 遊樂하며 心性을 陶冶하고 性情을 涵養하며 悠悠自適하려는 전형적인 儒家의 理想이 의식의 일면에 내재하고 있다. 詩와 賦를 논하고 이야기하다보면 文詞가 물이 끝없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쏟아져 나오고, 琴瑟을 연주하다보면 道의 참의미가 넉넉함을 깨닫고 있다. 그래서 진정한 선비는 취하고 배부름을 자랑하지 않고, 제후나 왕의 지위를 하찮게 여김을 토로하고 있다. 이와같이 명리나 영화와 같은 지엽적인 세상사를 버리고 文詞를 익히며 道體의 참의미를 체득하려는 삶에 대한 그의 의식적 기저를 감지할 수 있다. 그의 이러한 의식은 다음 작품에서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詩興何須入海求	시흥을 구하려 무엇하러 바다에 들어가리
吟詩興在鴈來秋	시흥은 흥이 기러기 오는 가을에 있는 것을
園收芋栗堪燒火	정원에 토란과 밤거두니 정히 불을 사르겠고
甕潑葡萄可瀉憂	단지에 포도주 익으니 시름을 씻을 수 있겠네
非聖人書那挂眼	성인의 글이 아니면 어찌 눈에 가까이 하리
不如意事肯回頭	여의치 못한 일에는 기꺼이 머리를 돌리리라
蕭蕭曉雨軒窗靜	새벽비 쓸쓸히 내리는데 현창은 고요하고
風引爐香滿几浮 <sup>14)</sup>	바람에 밀려온 화로 향기 책상위에 가득하네

예시는 聖學에 潛心하며 평소 뜻하지 않는 것에는 결코 마음을 두지 않으려는 그의 결연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구태여 시의 또 다른 흥취를 찾으려 멀리 바다에까지 갈 것 없이 기러기 날아오는 가을이면 이곳에서도 시흥을 찾을 수 있고, 뜰에 있는 밤과 토란을 추수하고 정원에 불을 피워놓고 여름에 담아놓은 단지의 포도주로 자신의 온갖 시름을 씻을 수 있음을 토로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삶속에서 성인의 글이 아니면 감히 관심을 두지 않고, 평소에 뜻하지 않은

13) 『論語』卷11, 「先進」. “點 爾何如 鼓瑟希 鐸爾舍瑟而作 對曰 異乎三子者之撰 子曰 何傷乎 亦各言其志也 曰暮春者 春服既成 冠者五六人 童子六七人 欲乎沂 風乎舞雩 詠而歸 夫子喟然歎曰 吾與點也”

14) 『聯芳世稿』卷三, 「次彥華韻」. 259面

것에는 기꺼히 머리를 돌리지 않으려는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여기서 약봉이 언급한 성인의 글은 바로 聖學으로써, 居敬이나 窮理와 같은 내적 修養論을 위한 聖人の 道가 실린 글을 말한다. 이러한 그의 견해는 “책을 읽으며 의리를 찾을 뿐 어찌 헛된 명예를 일삼으랴.15) 성현의 누른 책 가운데에서 너무도 명백하게 지시해 주네.”16)라고 하는 시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義理에 이르는 길은 다름 아닌 부단한 자기 성찰과 학문 수양에 기초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는 당시에 사림에서 說理를 언급하면서 의리의 중요성을 인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책을 읽으며 의리를 찾을 뿐이지 세상의 名利와 高位에 마음쓰지 않으려는 자신의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 2. 歸隱的 삶의 渴望

16세기 영남의 사림은 중앙정계에 어느 정도의 참여는 있었으나 그다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물론 이러한 정국은 당시의 정치적인 판도가 서인의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데도 動因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영남 사림들의 의식적 기저에는 대부분 출사에 연연하지 않고 주로 학문의 정진과 후학의 양성에 몰두하며 處士的인 삶으로 일관하였다.

약봉은 그의 生平에서 약 40년간 환로의 길을 걸었지만 부모의 봉양을 핑계 삼아 주로 閒職을 구하였고, 여러 州縣의 수령을 지냈다는 것은 앞장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생평에서 많은 해를 환로에서 보냈지만, 작품 속에 드러난 그의 의식적 기저에는 항상 벼슬을 그만두고 歸來하여 隱居하고자 渴望하는 情緒가 작품에 잘 드러나 있다.

京洛紅塵鬧      사람 많은 도시에는 붉은 먼지 드날리고  
江湖白日閒      조용한 강호에는 대낮에도 한가롭구나

15) 糟粕: 찌꺼기. 소용없는 물건. 『晉書』 “名位爲糟粕”

16) 『藥峯先生文集』卷二, 「讀書」, 130面 “讀書尋義理 豈可事糟粕 聖賢黃卷中 指示太明白”

已甘尋野興	이미 전원 흥취 찾은 것이 즐거운데
那憶點朝班	어찌 조정의 반열에 물들 생각하겠는가
疎散陶彭澤	쓸쓸함은 팽택의 도연명과 같고
悲涼庾子山	처량함은 유자산과 같다네
吾生雖異代	나의 삶이 시대 비록 달리하고 있으나
尙友意難刪 <sup>17)</sup>	벗삼고자 하는 뜻은 버리기가 어렵다네

예시는 權章仲과 權好文 등이 자신의 寓居를 찾아왔지만 자기를 만나지 못하고 시만 남기고 떠났기에 남긴 시에 대해 次韻한 작품이다. 약봉의 年譜나 行狀이 없어 정확히 창작한 시기는 상고할 수 없으나, 앞의 시를 근거해본다면 벼슬을 잠시 그만두고 낙향하고 있을 때 지은 작품인 듯하다.

예시는 시상의 전개에서 宦路에 연연하기보다는 江湖로 歸來하려는 자신의 의지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京洛보다는 江湖를 朝班보다는 日閒을 갈망하고 있다. 작품에서, 京洛은 京師로 대중이 사는 곳이라는 뜻인데 바로 임금의 사는 궁궐이 있는 곳이다. 경사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政爭으로 혼돈하여 江湖로 돌아가 한가롭게 지내고 있다. 그래서 강호의 이러한 삶속에서 전원의 흥취를 찾는 것이 즐거운데 구태여 조정의 반열에서 政爭이나 俗塵에 물들 생각이 없음을 피력하였다. 현재 자신의 삶이 비록 시대는 다르지만 彭澤을 마지막으로 자신의 소신을 보인 陶淵明과 北周의 문학자인 庾信과 같은 쓸쓸함과 처량함은 있다. 그러나 그들의 삶과 벗삼고자 하는 뜻은 버리지 못함을 잘 드러내고 있다. '江湖', '日閒', '彭澤', '庾子山' 등의 象徵語들은 주로 高踏이나 超越의 동경일 수도 있겠지만, 현실 세계와의 일정한 거리라고도 할 수 있다. 歸隱을 渴望하는 이러한 그의 의식적 정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제현실의 도피이기보다는 處世觀의 基底에 이미 정립되어 있는 思惟體系의 露呈이라 할 수 있다.

身外虛名摠不關	몸 밖의 헛된 이름 거의 관여치 않고
歸來誰禁碩人寬 <sup>18)</sup>	돌아옴에 누가 석인의 관광함 막으랴

17) 『藥峯先生文集』卷三, 「次權章仲好文輩來訪未遇所留詩還寄二首」, 158面

18) 『詩經』, 「衛風」考槃篇. “考槃在澗 碩人之寬 獨寐寤言 永矢弗諼”

急開廢宅十年勝	폐허된 집 십년의 빼어난 경치 급히 열고
永奉靈春百世權 <sup>19)</sup>	영춘의 백세를 위한 즐거움을 길이 받드네
白白江魚宜晚稻	회디 흰 강 물고기 느즈막 벼와 마땅하고
青青荊樹咲幽蘭	푸르디 푸른 자형 그윽한 난초에 비치네
一官羈絆眞無賴	한 관직에 매인 몸 진정 이로우미 없으니
歸養唯應早就閒 <sup>20)</sup>	벼슬 그만두고 얼른 돌아와 부모 봉양하리

예시에서는 虛名과 관직에 마음두지 않고, 田園으로 歸來하여 碩人의 寬廣과 부모의 봉양에 힘쓰려는 자신의 결연한 의지를 잘 피력하고 있다. 강호로 귀래하려는 약봉의 정서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전반부에서 ‘碩人寬’은 『詩經』의 「衛風」에 있는 考槃篇에서 賢者가 澗谷의 사이에서 은거하면서도 碩大하고 寬廣하여 근심하는 뜻이 없고 오히려 스스로 이러한 즐거움을 잊지 않겠다고 맹세한 것<sup>21)</sup>에서 用事한 것이다. 그는 세상에 모든 영화와 명리를 버리고 석인의 관광한 마음으로 전원으로 돌아와 부모의 백년해로를 위해 받들 것을 기약하고 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환로에서의 진정한 즐거움이 없으니 부모의 봉양을 위해 일찍 벼슬을 그만두고 돌아올 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의 이러한 의식적 기저에는 그의 사승관계에서도 일정한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는 退門에 출입하기 이전에는 주로 청계공에게 많은 학문적인 가르침을 받았다. 청계공은 16세에 姑母夫였던 權幹에게 수학하였고, 결혼한 후에는 閔世貞에게 나아가 학문을 수학하였다. 민세정은 조광조가 인재의 등용을 위해 건의하여 설치한 賢良科로 출사한 己卯名儒이다.<sup>22)</sup> 이들에게 수학한 청계공이 배운 기본적인 텍스트는 『小學』이었다. 이는 孝悌忠信의 實踐儒學이 講學의 주된 내용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사승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약봉 역시 어려서부터

19) 영춘(靈春) : 춘(春)은 춘(椿)의 오자로 생각됨. 이는 오래 사는 나무로서 후세에 부친을 일컫는 말로 쓰이는데, 『장자』 「逍遙遊」에서 취하여 오래 살기를 축원하는 뜻이 있다.

20) 『藥峯先生文集』卷三, 「書舍弟景純亭」, 246면

21) 『詩經』 「衛風」 考槃篇. “詩人 美賢者隱處澗谷之間 而碩大寬廣 無戚戚之意 雖獨寐而寤言 猶自誓其不忘此樂也”

22) 『藥峯先生文集』卷1, 「青溪先生行狀」, 79~80면

이러한 학문적 영향을 받았을 것이며, 훗날 안동 사림의 학문적인 추이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실재 그의 시세계에서도 이러한 의식적 기저를 토로한 작품이 다수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3. 沈潛을 통한 內省的 返照

유학에서는 타고난 인간 본연의 心性을 保存하고 涵養하는 공부가 전통적인 유자적 삶의 일반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로부터 품수한 본연의 性을 기르고 마음을 보존하고자 氣質과 物慾에 휩쓸리는 人心을 스스로 통제하며 精一하게 天理를 궁구하고자 하였다. 약봉 역시 전형적인 유가적 삶의 틀을 벗어나지 않았고, 이러한 그의 의지가 실재 작품에서 드러나 있다. 그는 세속적인 명리를 떠나 대자연을 벗삼고 자연에서 만물의 운행을 관조하며 자연 세계의 천리를 탐구하기도 하였고, 때론 沈潛하여 자신에게 稟賦된 本性을 기르고 마음을 보존하기도 하였다. 작품을 통하여 그의 이러한 의식을 살펴보기로 한다.

一陣清風塵酷炎  
脫巾高臥興偏添  
蟾棲桂樹初低戶  
鶴踏松枝半覆簷  
印綬縈身曾誤出  
囊書養性欲長潛  
山童解採重樓實  
不患秋田所入廉<sup>23)</sup>

단번의 시원한 바람이 혹독한 더위 물리치니  
두건 벗고 한가히 눕자 흥이 몹시 더하구나  
두꺼비 사는 계수[달]가 처음 문에 내려오고  
학이 앉은 소나무 가지 반쯤 처마를 덮었네  
관리 인끈 이 몸 얽매니 일찍이 잘못 나갔고  
자루에 책담아 본성기르며 길이 은거하려 하네  
산속에 어린아이 약초캐어 거둬 정자에 채우니  
가을 밭에 소출 적은 것 걱정하지 않는다네

예시는 人慾과 名利를 버리고 은거하며 本源을 지키고 修養하고자 하는 자신의 의지를 단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예시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작품의 분위기와 시인의 의지를 분석해 볼 수 있다. 때는 늦가을쯤으로 두꺼비가 산다

23) 『藥峯先生文集』卷三, 「題白雲亭」, 251面

는 계수나무가 있는 달이 문에 처음 비추고 학이 앉은 소나무 가지가 달빛에 어려 반쯤 처마를 덮고 있는 초저녁이다. 아직도 기승을 부리며 남아 있는 늦더위는 한번 불어온 시원한 바람에 사라지고, 편안한 차림으로 두건을 벗고 한가하게 누웠으니 흥취는 평소의 몇 곱이나 된다. 전반부에서는 動的이기보다 靜的인 분위기에 침잠해 있는 약봉의 심적 상태를 감지할 수 있다. 후반부에서는 人慾과 名利, 그리고 溫飽의 넉넉함에 관여치 않고 은거하며 본성을 기르려는 시인의 存心養性의 자세가 잘 드러나 있다. 추수한 곡식이 비록 적지만 산동이 캐어 온 약초가 정자에 가득하기에 걱정하지 않는다. 지난날 관직에 얽매인 오류를 반성하고 이제는 자루에 책을 담아 은거하며 본성을 기르고자 한다.

약봉의 이러한 자세는 다음 예시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亭在松杉蒼鬱中	정자는 송삼 울창한 가운데 있는데
綠窓丹檻映晴空	푸른 창 붉은 난간 맑은 하늘에 비치네
平池上下芰荷碧	평평한 못 상하에는 연잎이 푸르고
大野東南稻黍紅	넓은 들 동남에는 벼가 붉은 빛일세
酒興濃因佳客至	주흥이 진하긴 좋은 나그네 이르기 때문
春心留與好花同	춘심이 머물은 고운 꽃과 함께 함이로세
追隨富貴眞無味	부귀를 쫓아 따름은 참으로 무미한 것을
知命游哉不負衷 <sup>24)</sup>	명을 알고 노닐며 천성을 저버리지 말아야지

예시의 대체는 無味한 부귀를 쫓기보다는 天命과 本源의 道心을 堅持하려는 자신의 입장을 잘 드러내고 있다.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화려하거나 動的이기보다는 靜的이며 차분하여 潛心하려는 시인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소나무와 삼나무 울창한 鶴舞亭에 있으니, 푸른창과 붉은 난간에는 맑게 개인 허공 사이로 햇별이 스며들고 있다. 가까이 들의 연못에는 푸른 연잎이 여기저기에 있고, 멀리 넓은 들녘에는 벼가 붉은 빛을 띄고 있다. 近景과 遠景이 서로 對句를 이루며 景物의 평면적인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다. 좋은 객이 있고, 아름다운 꽃이 있기에 남다른 흥취와 춘심을 느끼고 있다. 부귀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

24) 『藥峯先生文集』卷三, 「次題李監察元厚鶴舞亭」, 250面

한지를 알고 이제는 天命을 알고 노닐며 마음의 본원인 성을 저버리지 않으려는 자신의 의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가 실제 창작 작품에서 理語를 빈용한 것은 유자의 상투적인 표현이 아닌가 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의 한시작품을 통독해 보면 구체적으로 的確하게 묘사되어 있고, 아울러 많은 작품에서 이러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軒雖朴素無華飾	현함이 비록 소박하고 화려한 수식은 없으나
勤掃朝朝亦自清	열심히 아침마다 청소한다면 절로 깨끗하리
若也移工心鏡上	만약 마음의 거울을 닦기에 그 공을 옮기면
有何塵垢穢光明 <sup>25)</sup>	무슨 속진의 때가 광명의 본체를 더럽히랴

예시는 自然의 觀照를 통하여 그것에서 常道の 具顯體를 파악하는 窮理와 明道の 인식 양상이 단적으로 드러나 있다. 화려하거나 지나치게 꾸밈이 없는 소박한 軒檻이라 할지라도 매일 아침마다 청소한다면 절로 깨끗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자연의 이치는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일반적인 사실이다. 그러나 한걸음 나아가 약봉은 이러한 단순한 진리를 근거로 하여 마음의 거울을 닦는데 공부를 옮기게 된다면, 세속의 어떤 인욕이나 물욕도 광명의 본체를 더럽힐 수 없다고 하였다. 이는 천지 운행의 질서에 인간의 존재가 합치되는 자연의 조화로운 이치를 露보한 것이다.

25) 『藥峯先生文集』卷三, 「掃軒吟」, 207面



## IV. 結 語

韓國 漢文學의 서술에서 道學派 文學의 활발한 연구와 그에 따른 많은 성과물이 축적되지 않았다는 것은 학계에서 이미 주지하는 바이다. 물론 이는 조선조의 주도적인 이념으로 작용했던 성리학의 폭넓은 이해의 부족이라는 점도 인정해야 할 부분이다. 본고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道學派 文學, 특히 嶺南 士林派의 한 문인이었던 藥峯을 학계에 소개하려는 의도에서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는 16세기에 훈구세력과 사림파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전환기를 살다간 인물이다. 어려서는 도학의 적통을 이은 아버지 靑溪公에게 수학하였고, 훗날 영남학파의 영수였던 퇴계의 문하에 출입하며 道學과 文學을 수업하였다. 이러한 학문적 수업은 그의 사유체계와 학문 형성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아울러 의식적 기저를 형성하는 데 단초가 되었음은 그의 문집을 통독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장에서는 앞에서 고찰한 약봉의 文藝意識과 詩觀, 그리고 詩世界를 정리해 보고, 아울러 몇 가지 남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그는 朝鮮朝 中期에 安東 士林의 대표적인 閥閥 家門의 문인으로서 전형적인 儒家의 학문에 근간을 이루었다. 그래서 그는 文藝意識에서 道本文末을 기저로 하였고 詞章을 小技나 末藝로 인식했다. 이는 배우는 사람들이 기이한 것만 좋아하고, 枝葉的인 문의 雕篆에 빠져 聖人の 경지에 나아가는 道를 구하지 못하는 당시 문인들의 폐단을 지적한 것이다. 그리고 후대의 제가의 평에서 그의 문장은 '峻潔蒼古'하고, 시는 '穠淡清婉'하여 당대의 문단에 으뜸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는 그의 詩風이 저속한 가락과 속된 언어를 버리고 화려하게 수식하여 꾸미기보다는 조작성이 없는 자연스러운 美感을 갖추었음을 알 수 있다.

약 500 여수에 이르는 그의 한시 작품을 개괄해 보면, 시체에 있어서 五言詩의 特長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그의 한시 작법이 묘사나 수사와 같은 꾸밈의 지나친 빈용보다는 詩語에 含蓄的인 의미를 내포하여 시상을 전개하는데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작품 제재상의 분류에서, 첫째는 기본적인 삶의 지향이다. 세상의 名利나 榮華와 같은 지엽적인 것을 버리고 文詞를 익히며 道體의

참의미를 체득하려는 삶에 대한 그의 의식적 기저를 감지할 수 있다. 둘째는 歸隱的 삶의 渴望이다. 물론 그는 생평에서 많은 해를 환로에서 보냈지만 그의 의식에는 환로에 연연하기보다는 강호로 귀래하려는 의지를 작품에 강하게 표출하였고, 이러한 의식적 기저에는 孝悌忠信의 實踐儒學이 내면에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는 沈潛을 통한 內省的 返照이다. 그는 沈潛하여 本源을 지키고 修養하는 存心養性의 의지를 작품을 통하여 단적으로 피력하였다.

이상 약봉의 시문학을 개괄적 정리해 보았다. 물론 본 논의는 영남 사람과 문학의 연구에 있어서 단초 역할에 불과하다. 비단 약봉 문학에 대한 연구뿐만이 아니라 이미 기존에 이루어진 연구에 대한 재조명과 아직 학계에 소개되지 않은 더 많은 새로운 자료를 발굴하여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영남 사람과 문학의 위상이 새롭게 정립될 것이다.